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1. 20(금)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b>400년간 묵은 갈등, 화해의 가치를 세운다</b>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 및 추향례 개최... 병호시비 종지부 찍는 화해의 장 영남유림 대통합의 성과... 화합과 상생의 새시대를 여는 경북 정신문화의 상징	문화유산과	
② <b>의성 이웃사촌 청년 스마트팜, 경북의 농업혁신 이끈다!</b> 11.20일, 의성군 안계면 일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 준공 첨단 스마트온실 5동 2.6ha, 육묘동, 선별시설, 가공체험동 등 조성	농업기술원	
③ <b>경북도, 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b> 강소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 위한 新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선언문 채택 프로젝트 추진으로 10년 후 3만명 고용, 6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 달성 목표	4차산업 기반과	
④ <b>경북도, 친환경 포장재로 수출과일 이미지 UP!</b> 경북도 개발 종이트레이(난좌) 적용 대만 수출 사과 13.2톤 선적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환경 친화적 이미지로 해외 바이어 호평	농식품유통과	
⑤ <b>청·포·도 - 청소년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b> ‘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 개최... 장애인 성악가 황영택씨의 희망이야기 공유	아이세상 지원과	
⑥ <b>경북도내, 코로나19 10명(국내 7, 해외 3) 발생</b> 세자매 가족모임으로 경산 3명 추가 발생... 관련 누적 확진자 27명 안동가족 성남방문 1명 추가발생, 김천대학교 3명, 해외유입 3명 발생	보건정책과	
⑦ <b>경상북도4-H 경진대회, 올해는 온라인에서 만난다.</b> 11.20일부터 5일간, 4-H 홈페이지와 정예청농 유튜브 채널 통해 개최 영농지역발전 아이디어, 농산물 꾸러미 영상 경진 등 분야별 경진 진행	농업기술원	
⑧ <b>김수환 추기경! 뮤지컬 ‘밥처럼 옹기처럼’ 으로 부활하다</b> 11. 21.(토) /14:00, 17:00,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메시지 전달	문화예술과	
⑨ <b>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위한 재경경북인의 염원 !</b> 11.19일, 재경 시도민회 운영위원회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촉구 동해안권 발전과 북방교류 대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확산키로	서울본부	
⑩ <b>경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b>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위한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자치행정과	
⑪ <b>경북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 진행</b> 최영두 미술사의 ‘패밀리 매직핑크’, 시 노래 콘서트 ‘시를 위한 노래’ 11월 21일(1차 공연), 28일(2차 공연) 두 차례 비대면 공연 운영	경북도서관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성자	과장	임진걸			
			팀장	이은정	주무관	김광진	
연락처	054-880-3163						

## 400년간 묵은 갈등, 화해의 가치를 세운다

-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 및 추향례 개최... 병호시비 종지부 찍는 화해의 장 -
- 영남유림 대통합의 성과... 화합과 상생의 새시대를 여는 경북 정신문화의 상징 -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서애 류성룡 선생 가문과 학봉 김성일 선생 가문의 400년간 이어진 묵은 갈등(병호시비)이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를 계기로 화해의 가치를 새로 세운다.

호계서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서원 중 하나로 1573년 여강서원으로 창건된 후 숙종 2년(1676년) 사액되면서 호계서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철거 후 7년 뒤 강당만 새로 지은 채 남겨졌다가 안동댐 건설로 1973년 임하댐 아래로 이군 됐으나, 습기로 서원건물 훼손이 우려되자 지역유림 등에서 이군과 복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도는 2013년부터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도산면 서부리로 이군 및 복원을 추진해 지난해 말 안동시 도산면 한국국학진흥원 부지에 복설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호계서원은 1만㎡의 부지에 13동의 서원건물로 구성되었으며, 총 93칸에 이른다.

복설된 호계서원은 ‘병호시비(屏虎是非)’라는 400년간 이어진 영남유림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징표이다.

‘병호시비(屏虎是非)’란 퇴계선생의 제자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선생을 배향하는 과정에서 위차(서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생한 3차

례의 시비를 말한다.

호계서원 내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의 위패 서열을 두고 벌어진 병산서원과 호계서원 사이의 대립으로 400여 년간 갈등을 빚어왔으며, 갈등이 깊어지면서 영남유림을 둘로 갈라놓았다.

이런 해묵은 갈등은 경북도의 중재로 류성룡을 퇴계 위패의 동쪽에, 김성일을 서쪽에, 김성일의 옆에 그의 후학인 이상정을 배향하기로 합의하면서 영남유림 간 오랜 갈등이 비로소 해결됐다.

호계서원 복설추진위원회(회장 노진환)는 20일 호계서원 복설(復設) 고유제 행사를 개최하고 영남유림 간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대통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고유제 : 국가나 개인의 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르고자 할 때 종묘(宗廟)나 가묘(家廟) 등에 그 사유를 고(告)하는 제사

이날 열린 고유제는 호계서원의 복설 소식을 널리 알리고, 경북정신 문화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윤동춘 경북경찰청장,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 및 유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호계서원의 복설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초헌관으로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호계서원의 복설은 영남유림의 합의에 의해 대통합을 이루어낸 성과” 라며, “화합, 존중,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경북 정신문화의 상징이 될 것” 이라며,

“이러한 화해와 대화합의 상생 메시지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통합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신적 구심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별첨>

## 참고

#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 및 추향례 개최

## ◆ 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사업 현황

- 이건위치 :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32일원(국학진흥원 부지)
- 규 모 : 부지조성(약 10,000㎡) 서원건물(13동, 약700㎡), 총 93칸
- 사 업 비 : 6,500백만원(복원사업 : 지특 5,000백만원)(이건사업 : 도비 750, 시비 750)
- 공사기간 : 2012 ~ 2019년 ※ 이건 : 2건 송교당(강당), 동몽재(관리사)
  - ▶ 호계서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 ■ 행사개요

- 일 시 : 2020.11.20.(금) / 10:00~
- 장 소 : 도산면 호계서원
- 참 석 : 50명 정도

※ 주요참석자 : 도지사,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의장 및 의원, 대구지방검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국학진흥원장, 매일신문 대표, 영남일보 대표, 경북 시군 유림 대표 등

- 행사내용 : 호계서원 복설 고유제 및 추향례
- 주 관 : 호계서원 복설추진위원회(회장:노진환)

##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 ~ 10:00	30' ▶ 관복 준비	송교당
10:00 ~ 11:00	60' ▶ 제의	송교당
11:00 ~ 12:00	60' ▶ 고유제 및 추향례	사당
12:00 ~ 12:20	20' ▶ 음복 (축사)	송교당, 동·서재
12:20 ~	▶ 이동 및 오찬	인문정신문화원 식당

## 병호시비(屏虎是非)

- 퇴계선생을 모신 여강서원 (1573년 건립, 1676년 숙종때 사액을 받아 호계서원으로 개칭)에 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1538~1593)과 서애 류성룡(1542~1607)을 배향하는 과정에서 위차(서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생긴 3차례의 시비를 말한다.
- 퇴계의 수제자는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월천 조목, 한강 정구를 꼽는데 누구를 퇴계와 함께 배향할 것인가에 대해 문중을 넘어 제자들 간에 보이지 않은 대결구도의 양상을 띠고 전개 되었다.
- 1620년 병호시비의 발단(1차)은 퇴계를 모신 여강서원에 네 살위인 학봉을 상위에 모시자는 장유유서를 주장과 영의정을 지낸 서애를 상위에 모시자는 관작 주장 하였으나 서애 류성룡을 상석으로 결정으로 일단락 [영남학맥 좌장 우복 정경세(1563-1633) 위임 결정]
- 1805년 병호시비 2차 논쟁은 영남유림에서 성균관 문묘(文廟)에 영남을 대표하는 4명의 유학자를 종사(從祀)하게 해 달라는 상소를 올려 학봉 김성일-서애 류성룡 순으로 결정하자 서애 제자들이 서열문제로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상소를 추진하자 조정에서는 상소문을 모두 기각함.
- 병호시비 3차 논쟁은 학봉과 서애 문중과 제자들의 시비로 문묘배향의 기회를 잃어버린 한강과 여현의 제자들이 독자상소를 결정하고 유림에 “학봉, 서애...”순으로 통문을 작성하자 서애 제자들은 호계서원과 결별하고, 병산서원에 회향함. 이후 안동유림은 학봉(虎溪書院)과 서애(屏山書院)으로 갈라지게 되고, 오늘까지 400년을 이어오는 갈등이 유지됨.
- ▶ 병산서원의 병(屏)자와 호계서원의 호(虎)자를 따서 병호시비라 부르게됨
- ▣ 호계서원 복설과 고유제 행사 : 서애(동쪽), 학봉(서쪽) 배향으로 최종 결정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자	과장	김수연		
			팀장	김신동	주무관	-
		연락처	053-320-0246			

## 의성 이웃사촌 청년 스마트팜, 경북의 농업혁신 이끈다!

- 11.20일, 의성군 안계면 일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 준공 -
- 첨단 스마트온실 5동 2.6ha, 육묘동, 선별시설, 가공체험동 등 조성 -
- 청년 모듈러주택과 셰어하우스, 안계초 KT-A이스쿨 등 기반시설도 속속 완료 -

경상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남진복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김수문, 임미애 도의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지역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퓨전국악 축하공연, 경과보고, 유공자 시상,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일원에 들어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해 3.9ha 부지에 첨단 스마트 온실 5동(2.6ha, 축구장 4개 면적)과 육묘장 7동이 설치되었으며, 내년까지 선별출하시설, 가공체험동, 교육연구동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준공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첨단 스마트 온실에서 딸기 육묘, 재배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까지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농작업을 손에 익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은 만 39세 이하 도시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사전교육, 창업실습훈련, 창업지원의 3단계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파머로 거듭나게 된다.

지금까지 지난해 1기 50명, 올해 2기 33명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3기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1기 교육생중 8명은 의성군에 창업하며 청년농업인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날 스마트팜 준공식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들이 주거할 모듈러주택과 청년쉐어하우스 현장을 둘러봤다.

모듈러주택은 (주)포스코의 지원금 5억원을 포함해 32억원으로 건립된 18동의 청년 공유주택이며, 별도 건물로 청년커뮤니티센터가 함께 조성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택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후 (주)포스코 방미정 사회공헌그룹장(상무보)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에 함께 참여한 고마움을 표했다.

안계들판 중심에 조성된 청년쉐어하우스는 방치된 여관을 리모델링해 7실의 청년보급자리로 탈바꿈했으며, 청년쉐어하우스 옆에는 작은 영화관, 헬스장, 야외테라스를 갖춘 KT-꿀잼충전소가 함께 조성돼 청년들의 여가와 모임장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안계초등학교로 향한 이철우 도지사는 KT-AI 스쿨을 방문했다.

KT-AI 스쿨은 농촌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스마트교육을 이끌어갈 IT 교육장으로 KT-AI 코딩팩, KT-리얼큐브(교육용 실감 스포츠), KT-Super VR, 스마트보드(전자칠판)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농촌학교에는 드물게 10기가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빠르고 쾌적한 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KT 석은권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상무)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구석구석 둘러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들의 모습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며 동참해준 (주)포스코와 (주)KT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라며,

“스마트팜 조성과 함께 청년주거 확충, 문화·복지·의료 개선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청년이 찾아드는 행복마을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참고

# 『이웃사촌 시범마을』 스마트팜 준공식 및 도지사 현장방문 계획

## 1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 20.(금) 14:30 ~ 16:20
- 장 소 : 의성군 안계면 일원(스마트팜 창업실습훈련장 등)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156-1번지 외 3개소)
- 참석인원 : 150명 정도(도지사, 의성군수, 도의원, 교육생, 지역민)
- 주요내용 : 스마트팜 준공식(식전행사,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시설투어) 및 모듈러주택, kt-AI 스쿨, 셰어하우스 현장방문 등

## 2 시간계획

구분	시간별	주요 내용
식전행사	14:10~14:30 20'	▶ 퓨전국악
준공식	14:30~14:31 1'	▶ 개식선언(사회자)
	14:31~14:36 5'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4:36~14:41 5'	▶ 경과보고 (농업기술원장)
	14:41~14:44 3'	▶ 표창장수여(도지사)
	14:44~14:50 6'	▶ 인사말씀(도지사)
	14:50~15:05 15'	▶ 축사(주요내빈)
	15:05~15:10 5'	▶ 준공식 기념 퍼포먼스
시설투어	15:10~15:17 7'	▶ 시설투어 A동(커팅식, 조롱박 깨기)
1호 창업현장 방문	15:17~15:25 8'	▶ 이동 (행사장 → 1호 창업자)
	15:25~15:30 5'	▶ 창업자 설명 (최성호 농장)
이웃사촌 시범마을 현장방문	15:30~15:50 20'	▶ 청년주거(모듈러주택) 방문
	15:50~16:10 20'	▶ 안계초 kt-AI 스쿨 방문
	16:10~16:20 10'	▶ 청년주거(셰어하우스) 및 kt-꿀잼충전소 방문

 경상북도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과학기술국 4차산업기반과			
		작성자	과장	박인환		
			담당	홍인기	주무관	홍진근
		연락처	054-880-2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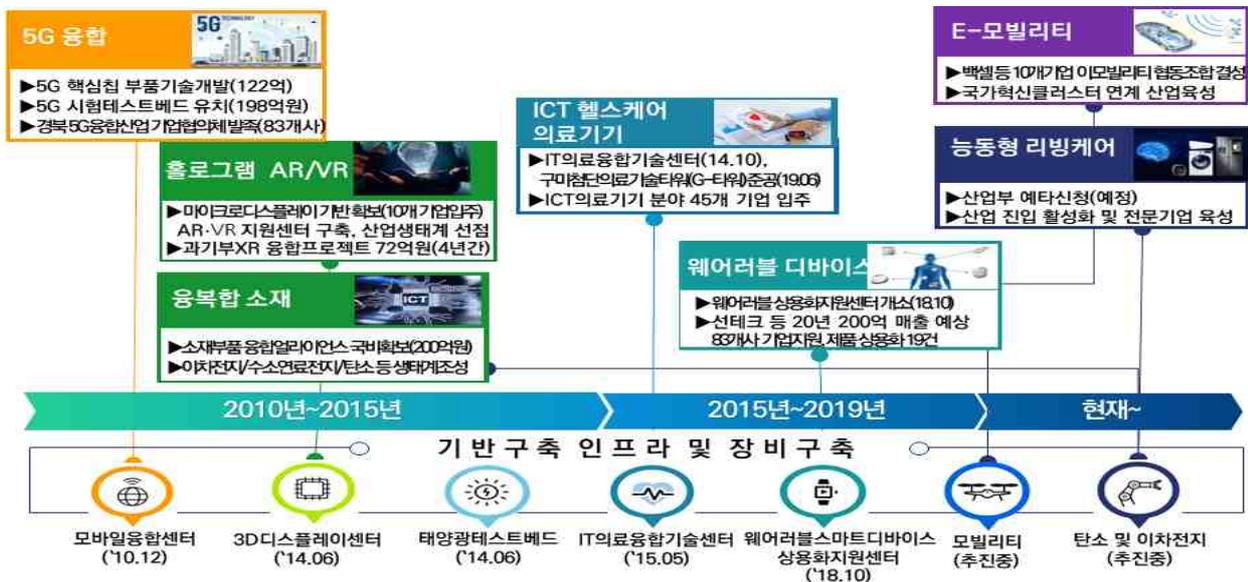
## 경북도, 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강소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 위한 新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선언문 채택 -
- 프로젝트 추진으로 10년 후 3만명 고용, 6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 달성 목표 -
- 인프라 중심에서 기업중심 혁신생태계로 과감한 변화... 산업계 체감도 향상 -

경상북도가 지역 전자산업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2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新전자산업 발대식’ 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민선7기를 맞아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5G테스트베드와 스마트산단, 산단대개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전자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G중심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인프라들이 상당부분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참고 : 新전자산업육성 추진성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혁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新전자산업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올 7월에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융합얼라이언스(Alliance)\*라는 산업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4차산업에 맞는 혁신과제를 선정해 기업중심의 산학연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얼라이언스 : 산업확산, 산업방어, 연구협력 등을 위해 산학연관이 결합, 동맹을 이루는 행위 또는 결합체

특히, 4차산업은 업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지역 산업계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이날 민관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新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전자산업 혁신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참여기업들은 혁신주체로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야말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인프라 구축위주의 사업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 기업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7개 분야에 융합얼라이언스 사업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홀로그램, 리빙케어 가전, e모빌리티 등 4차산업시대에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

사업분야	추진목표 및 방향	연계방안	'30년 기준 목표치		
			기업 수	인원	생산액
능동형 스마트리빙케어	능동형 스마트리빙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활성화 및 전문기업 육성	에비타당성조사사업 연계로 성과 창출/보급/확산	17개	1,578명	3,877억원
첨단 신소재 부품	중소기업 중심 융합산업 확산 융복합 소재 적용 산업 분야 확대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과 연계	20개	1,588명	4,597억원
5G 융합서비스	구미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5G 융합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스마트산업/문화관광/헬스케어/팜"으로 성과 보급/확산	25개	1,513명	4,825억원
헬스케어 의료기기	4대 중점 분야 강소기업 육성 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스마트 헬스케어"로 성과 보급/확산	12개	1,211명	3,886억원
홀로그램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다각화 차세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신산업 창출	"스마트 문화관광"으로 성과 보급/확산	15개	1,350명	3,615억원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신시장 창출 제품-제조-서비스 연계로 신시장 창출	"스마트산업/문화관광/헬스케어"로 성과 보급/확산	22개	1,476명	5,593억원
스마트 이모빌리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스마트 이동체 제조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스마트 산업"으로 성과 보급/확산	12개	1,332명	3,620억원

< 참고 : 모바일,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기반 7+3 신전자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10년 후 3만명 이상의 고용증대와 6조원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참고 : 신전자산업 육성프로젝트 정량 목표 >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산업단지에는 대기업 이탈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공장가동률이 반증하듯 여전히 대기업 의존형 생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대기업 의존형 생산구조는 강소기업 중심 혁신생태계로 탈바꿈해 단순집적지인 산업클러

스터를 탈피하고 개방형 학습생태계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이번 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인프라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이 기업중심 혁신생태계 육성 정책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면서, “경상북도라는 지역이 하나의 혁신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힘을 합쳐 4차산업의 파도를 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경상북도	<b>보도자료</b> 【'20. 11. 20(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자	과장	설동수			
			팀장	이희수	주무관	류교정	
		연락처	054-880-3340				

## 경북도, 친환경 포장재로 수출과일 이미지 UP!

- 경북도 개발 종이트레이(난좌) 적용 대만 수출 사과 13.2톤 선적 -
-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환경 친화적 이미지로 해외 바이어 호평 -

경상북도는 20일 대구경북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기능성 친환경 과일 트레이(난좌)를 적용한 대만 수출용 사과 13.2톤을 선적했다.

이번 선적식은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사과, 배 등 과일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스티로폼 트레이를 대체할 친환경 종이트레이를 개발, 1년간의 샘플 테스트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과일트레이란 현장에서 일명 난좌라 불리는 과일 받침용 속포장재로 90년대부터 30여 년간 스티로폼 재질의 제품이 통용되어왔으나, 포장재 폐기에 대한 거부감과 장거리 이동 중 흔들림 및 통기부족으로 제품 하자가 빈발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경북도에서 개발한 종이트레이는 제품별 맞춤형 제작으로 유통과정 중 흔들림을 없애고 신축성과 통기성을 겸비해 획기적인 품질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포장재 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스티로폼 트레이와 속포장망 퇴출로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 친화적 이미지 부각으로 지난 1월 첫 샘플수출로 싱가포르와 대만시장에서는 이미 호평을 받은바 있어, 향후 농식품 포장재 전반에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에도 'daily' 브랜드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과실

고품질 브랜드화 노력, 신남방권역 중심의 온라인 수출상담회, 홍보·판촉행사, SNS 홍보 등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올해 10월 경북도 과실류 수출은 2천9백만불로 전년 동기 2천7백만불 대비 7.5% 증가율을 보였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종이트레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수출확대가 농업 분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짐에 따라 국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 행사 후 송부>

## 참고

## 과일트레이 비교사진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아이여성행성국 아이세상지원과			
		작성 자	과 장	황보 석		
			팀 장	권범준	주무관	윤지영
		연 락 처	054-880-4554			

## 청·포·도 - 청소년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 '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 개최... 장애인 성악가 황영택씨의 희망이야기 공유 -

경상북도는 20일 영주 148아트스퀘어 공연장에서 도내 중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 를 개최했다.

'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 는 2015년부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서원) 주관으로 시작되었으며,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과 미래 설계를 위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명사의 경험담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콘서트는 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으로 콘서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운영됐다.

또 청소년들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면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소감을 밝히거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도 강연자들의 일방적인 지식·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들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청·포·도-청소년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는 장애인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영택 강사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꿈을 꾸고 살아가는 희망지기에 대한 강연을 자신의 노래와 함께 전달했다.

황영택 강사는 1992년 포항제철에 근무할 때 산업재해로 척수가 손상 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1998년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37세의 나이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성결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성악가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학업에 지친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소년 스스로 꿈과 진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참고

# 2020 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 계획

- ❖ 청소년과의 토크를 통해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과 방향 제시하는 소통의 장 마련

## I 사업개요

- 일시/장소: 2020. 11. 20.(금) 14:00~16:30 / 영주 148아트스퀘어
- 주요내용: 토크 콘서트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
  - 청소년의 행복, 꿈·비전 방향 제시 등 특강- 황영택 강사\*
  - \* 붙임 참고
- 사업대상: 영주시 관내 중학교 1학년 1,000여 명
- 운영방법: 비대면 온라인 형태 운영(유튜브 라이브방송)
  - 콘서트는 공연장에서 진행하되,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어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시청하고, 채팅을 통해 소통

## II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 14:00		○ 입장 및 안내	
14:00 ~ 14:20	20분	○ 식전공연 -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 동아리
14:20 ~ 14:30	10분	○ 개회 - 국민의례 및 인사말씀	
14:30 ~ 16:00	90분	○ 희망 토크 콘서트	황영택 강사
16:00 ~ 16:30	30분	○ 질의응답	
16:30 ~		○ 폐회	

**첨부****강연자 이력**

강연자	이력	비고
 <p>【황영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 포항제철 근무</li> <li>• 1992 산업재해(척수손상 / 하반신마비)</li> <li>• 1998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li> <li>• 1999 방콕장애인아시아대회- 동메달 대통령표창 수상</li> <li>• 2007 성결대 성악과 졸업</li> <li>• 2018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li> <li>• 2019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 수상</li> <li>• SBS, CBS, TV조선 등 다수 출연 희망 강사로 공연 및 강연 활동</li> </ul>	

공식 홈페이지 : <http://www.hwangyoungtaek.com/mail>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이민자	주무관	손승민	
연 락 처	054-880-3788						

## 경북도내, 코로나19 10명(국내 7, 해외 3) 발생

- 세자매 가족모임으로 경산 3명 추가 발생... 관련 누적 확진자 27명 -
- 안동가족 성남방문 1명 추가발생, 김천대학교 3명, 해외유입 3명 발생 -

경상북도는 19일 코로나19 국내 7명, 해외유입 3명 등 총 10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자매 가족여행(천안, 청송, 청도)으로 시작된 확산은 14일 2명, 15일 13명, 16일 3명, 17일 1명, 18일 5명에 이어 19일 3명이 추가 확진됐다. 3명의 확진자는 초·중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학교관계자 전원에게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누적확진자 27명 : (11. 14) 청송 2 → (11. 15) 청도 8, 경산 4, 영천 1 → (11. 16) 경산 2, 성주 1 → (11. 17) 경산 1 → (11. 18) 경산 5 → (11. 19) 경산 3

안동가족 성남방문은 14일부터 15일까지 안동 일가족 4명이 성남의 친척집을 방문해 18일 3명이 확진되는데 이어 19일 추가로 1명 확진되어 가족 전원이 확진됐다.

※ 누적확진자 4명 : (11. 18) 안동 3 → (11. 19) 안동 1

김천대학교 학생들 3명이 신규로 확진됐다.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와 학생들의 접촉자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학과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누적확진자 3명 : (11. 19) 김천 3

또 해외유입은 과테말라에서 입국한 내국인 가족 3명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 확진자 거주지 : 김천 3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없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작성자	과장	조영숙			
			팀장	이우경	담당자	문의영	
		연락처	053-320-0285				

## 경상북도4-H 경진대회, 올해는 온라인에서 만난다.

- 11.20일부터 5일간, 4-H 홈페이지와 정예청농 유튜브 채널 통해 개최 -
- 영농지역발전 아이디어, 농산물 꾸러미 영상 경진 등 분야별 경진 진행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경북 4-H 공식 홈페이지(www.gb4h.co.kr) 및 ‘정예청농’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52회 경상북도4-H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도내 4-H회원들이 경진활동을 통해 4-H정신을 함양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회로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진은 분야별로 온라인 경진과 실시간 경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는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원들도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이용해 경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진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청년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물하는 ‘응원 댓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진종목은 영농 창업 및 지역발전 아이디어 경진, 농산물 꾸러미 영상 경진, 디지털 장기자랑, 4-H퀴즈 골든벨 및 넌센스 그림 맞추기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진 종목을 채택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진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쉽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격려했다.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은 “코로나 공존시대 상황에 맞게 청년농업인 4-H회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끼를 마음껏 뽐내는 것을 보며, 농업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며,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4-H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잘사는 농촌, 희망이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사진 행사후 송부>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18.(수)】</b>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정책관	정 창 명			
			팀 장	백영민	주무관	전해영	
		연 락 처	054-880-3136				

## 김수환 추기경! 뮤지컬 ‘밥처럼 옹기처럼’ 으로 부활하다

- 11. 21.(토) /14:00, 17:00,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  
 -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메시지 전달 -

경상북도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1주년을 기념해 추기경을 추모하는 창작 뮤지컬 ‘밥처럼 옹기처럼’ 을 오는 21일 14시, 17시 두 차례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

김 추기경의 생애를 통해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김 추기경을 추모하고, ‘서로 밥이 되어 주라’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초연에 이어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후원과 매일신문의 주최로 마련됐다.

‘밥처럼 옹기처럼’ 은 가난한 옹기장수의 막내로 태어난 김 추기경의 생애를 담은 전기적 뮤지컬이다.

한국 최초로 추기경의 자리에 올랐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위치에 서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정치적·사회적 격동기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사랑을 몸소 실천한 김 추기경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

공연은 영상을 통한 서막으로 시작되며, 1장 옹기처럼 자라나다, 2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사랑, 3장 세상의 그늘에 빛이 되어라, 4장 눈을 감는 그날, 에필로그, 피날레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뮤지컬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문화로채움(TBC)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김 추기경의 선종 11주기를 기념하고 생전 철학인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며 계승하기 위한 이번 공연은 가치 혼돈의 시대에 김 추기경이 남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람 바란다” 고 말했다.

<사진별첨>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경상북도 서울본부			
	작성자	본부장	김 외 철		
		과장	변재엽	담당	신민경
	연락처	02-796-6595			

##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위한 재경경북인의 염원 !

- 11.19일, 재경 시도민회 운영위원회에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촉구 -
- 동해안권 발전과 북방교류 대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확산키로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강보영)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영일만 횡단대교가 낙후된 동해안권 발전은 물론 유라시아 북방 교류를 대비한 국가발전의 핵심사업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넓게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포항~영덕 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이 중 영일만 횡단구간 18km에 대해서는 설계비(190억원)조차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미 반영된 상황이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낙후된 동해안권 발전은 물론 부산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일부로 북방교류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수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해상교(海上橋)가 가지는 관광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보영 회장은 “국회예산심의회에서 지역의 오랜 염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절박한 염원” 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외철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바다와 접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경북의 상황과 국회 예산진행경과를 설명하면서, “재경 시도민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반영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 자	과 장	정진환			
			팀 장	박도현	주무관	김승연	
		연락처	054-880-2837				

##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위한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의료·복지 등의 전문 유관기관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 사업계획 보고 이후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정착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지역은 50대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35%\*를 차지해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경북지역 북한이탈주민 : 전체 1100명, 50대 이상 390명

김병삼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각 분야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북도가 구심점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지역적응센터

• 경북하나센터 (☎ 054-444-8861) ※ 경산은 대구하나센터 관할

- : 관할지역(13) :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 포항지역사무소 (☎ 054-256-0456)

- 관할지역(9) :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울진, 울릉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11. 20(금)】</b>	담당부서	경북도서관				
		작성 자	관 장	김진창			
			팀 장	신광현	주무관	박선희	
연락처	054-650-3923						

## 경북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 진행

- 최영두 마술사의 '패밀리 매직핑크', 시 노래 콘서트 '시를 위한 노래' -
- 11월 21일(1차 공연), 28일(2차 공연) 두 차례 비대면 공연 운영 -

경북도서관(관장 김진창)은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을 경북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21일 진행되는 1차 공연은 최영두 마술가의 '패밀리 매직핑크'로 비둘기 마술을 시작으로 카드 마술, 마술 배워보기, 그림자 퍼포먼스 등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가 펼쳐진다.

또한, 28일 진행되는 2차 공연은 시노래 콘서트 '시(詩)를 원(願)한 노래'를 통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 등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에 곡을 붙인 시 노래를 함께 나누며, 어쿠스틱 기타의 정갈함과 애절한 해금이 만나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은 공연 당일 9시부터 21시까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영상 URL 접속을 통해 경북도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서관은 이외에도 '2020 북가락 Book·歌·樂 문화 아카데미' 10회차 공연으로 '권나무 콘서트, 새로운 날'을 25일 저녁 7시 30분부터 경북도서관 강당(2층)에서 대면 공연으로 진행한다.

공연 관람 신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경북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연 당일 관람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자 명단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검사 등이 요구된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제약이 많은 현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은 많은 도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면·비대면 문화프로그램 발굴로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북도서관이 되겠다” 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lib.g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경북도서관(054-650-3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별첨>